

 <b>국토교통부</b>	<b>보도자료</b>		<small>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</small> <b>보다나은 정부</b>
	<b>배포일시</b>	<b>2018. 12. 8(토)</b> <b>총 1매(본문 1)</b>	
<b>담당 부서</b>	철도안전정책과	<b>담당자</b>	• 철도안전정책과 이형주 사무관 • ☎ (044)201-4603
<b>보도일시</b>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**강릉역 ~ 남강릉간 KTX 열차 탈선(4보)**      12.08. 14:00기준

'18년 12월 8일 07:35경 강릉발 서울행 KTX제806호 열차가 강릉역 ~ 남강릉간 운행 중 10량이 탈선하였으며, 15명의 부상자가 발생

- 열차탈선으로 15명의 부상자\*(승객 14명, 직원 1명)가 발생('18.12.8. 12시 기준)하여 인근병원으로 이송하였으며, 승객 14명은 모두 귀가 하고, 직원 1명은 진료 중
  - \* 승객 1명이 추가로 통증을 호소하여 병원 진료
- 열차에 탑승한 승객은 전원 버스로 연계수송하여 진부역 및 강릉역으로 이동하였고, 서울~진부 구간은 열차로 수송 중(강릉~진부는 버스 33대 운행 중)
- 사고로 KTX 차량 10량이 탈선하고, 전차선 및 조가선 약 100m가 단선되었으며, 레일 약 400m가 굴곡되는 등\* 물적피해가 발생
  - \* 전철주 1본 파손, 가동브래킷 2본 파손, 급전선 1개소 단선, 침목 340정 파손 등
- 국토교통부는 위기단계를 경계단계로 격상(11:00)하고, 철도안전정책관을 실장으로 상황실을 운영 중임
  - 사고수습 지원 및 현장 안전활동 등을 위해 2차관 및 철도국장, 철도안전감독관(7명), 철도경찰(12명)이 현장 출동하였고,

- 또한, 사고원인 조사를 위해 항공·철도사고조사위원회(4명)가 현장 출동하였음
- 한국철도공사는 296명 및 기중기, 모터카 등을 동원하여 복구 중이며, 복구예정 시간은 '18.12.10(월) 02시경으로 추정됨
- 한편, 국토교통부 김정렬 제2차관은 강릉시, 철도공단, 철도공사와 긴급회의를 개최(14:30, 강릉시청)하여 “탈선사고로 인해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마음깊이 사과드리며, 빠른 복구와 안전한 운행 재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- 아울러 제2차관은 강릉시(김한근 시장), 행정안전부(이승우 사회재난 대응정책관), 철도공사, 철도공단, 소방방재청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조속하고 안전하게 복구되도록 당부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(☎ 044-201-4603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- 어제 총리께서 한파대비 전국에 사고가 없도록 대응태세를 갖추도록 특별히 지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, 사고가 발생해 유감스럽게 생각함
  - 사고 당하신 승객, 열차를 이용하기 위해 기다리신 분들, 강릉 지역 인근주민에게 죄송하며, 더불어 국민들께도 송구함
- 이번 사고로 부상자가 15명 발생하였는데 다행히 경상으로 현재 직원 1명을 제외한 승객 14명은 모두 귀가하여 불행 중 다행이라 생각함
- 그러나 KTX탈선 사고는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을 수 없음. 드문 사고이고, 대형 사고로 이어져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음.
  - 무엇보다도 원인규명을 통해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 중요함
  - 사고원인에 대해서는 항공·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철저히 조사할 계획임
- 강릉시(김한근 시장), 행정안전부(이승우 사회재난대응정책관), 철도공사, 철도공단, 소방방재청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조속하고 안전하게 복구되도록 당부드림
  - 월요일 새벽까지 복구를 완료하기 위해 300여명이 주야로 한파속에서 작업해야 하므로, 상기 유관기관에서는 복구인력을 위한 편의시설 및 휴식공간, 식사·온수·간식 등 인적·물적 자원을 최대한 동원·지원해 주기를 요청함
- 오늘 탈선사고로 인해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마음깊이 사과드리며, 빠른 복구와 안전한 운행 재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